

지역 매 아리

정읍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선착순 모집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31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9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직장 거주자 포함)으로 혈압과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다. 다만 관련 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인 있는 사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식이와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주 1회씩 2주간 진행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활동량계가 무료로 지급된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팀으로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관리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과 시간적 제약이 많은 직장인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마트폰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민성질환팀(☎39-6094~5/6088/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 위해 동분서주

권익현 부안군수는 9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5개 중앙부처를 돌며 2020년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을 위한 발품행정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부안 동학랜드 조성사업과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계화 간척농촌다목적복합사업 등 9건을 건의하고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부안 동학랜드 조성사업을 건의했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계화 간척농촌다목적복합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도 들러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신항만~홍보관)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했다.

또 환경부를 방문해 지서2단계·동진2단계·줄포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모항·과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 박건수 과장과 해양수산부 오병록 과장 등과 잇따라 티타임을 갖고 부안군 현안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예산 반영을 부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바라보다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오늘 황토현 전적 일원서 열려

올해로 52회를 맞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10일 정읍 황토현 전적 일원에서 열린다.

기념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가 주관한다.

'통일(統一)로 직향(直向)할 사(事)'라는 슬로건으로 광복 이후 격동의 시대를 겪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이다.

기념제는 1894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사(史)의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교육 놀이터로 마련된다.

단순 즐길 거리와 놀 거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효과와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전 국민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전야제에서는 가수 홍진영과 송대관, 장윤정 등이 출연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적 일로 제정된 것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친다.

11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정읍 황토현 전적 특설 무대에서 이임생중계한다. 행사는 수제천 공연과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시상 및 영상상영, 황토현에서 열리는 511인의 함성, 기념공연, 제9회 동학농민혁명대회, 구민사 갑오선일 제례 및 위패봉안례, 나누매기와 함께 하는 쟁개발랄페스티벌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2일은 사발통문 최초 작성자인 고부면 대피마을의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에서 위령제가 열린다.

또 주무대인 황토현 전적지에서는 전국농악경연대회와 전국역사퀴즈대회, 황토현전국청소년토론투대회, 구민사 갑오선일 제례 및 위패봉안례, 나누매기와 함께 하는 쟁개발랄페스티벌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신라박물관에서는 옛 박물관터를 재연해 체험·공연·먹거리부스 등 다양한 장르 분위기를 연출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시는 행사장 내 종합안내소를 설치해 미야보호소를 운영, 노약자용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배치해 기념제를 찾은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계승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기념제를 통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임을 재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한층 더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을 조성사업 마무리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혁명 선양 사업추진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최초 부싯돌 성화채화로 전북도민체전 본격 돌입

고인돌 왕국 고창군이 세계최초로 부싯돌 성화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북도민체전 일정에 돌입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에서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전북도민체전 성화채화식'이 열렸다.

특히, 이번 성화는 '한반도 첫 수도, 불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도산리 고인돌에서 세계 최초로 부싯돌 방식으로 채화돼 관심을 끌었다.

또 유기상 군수가 초현관을 맡고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이 아현관, 이창근 교육장이 종현관을 각각 맡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천재도 봉행됐다.

주선ner가 채화한 성화는 유기상 군수가 첫 주자에게 인계를 시작해 245명의 봉송 주자들이 주요 관광지(고인돌공원, 청보리밭, 무장기포지, 무장읍성, 선운사, 고창읍성)를 포함한 14읍·면, 34구간, 148명이 122.5km를 달려 오후 5시에 고창군청 광장에 안치됐다. 이날 성화봉송은 국민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봉송 주자로 참여해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성화가 지나가는 주요 구간에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의 특색 있는 성화봉송 이벤트(풍물, 난타 등)가 펼쳐졌다. 청보리밭,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등 주요 관



고창군이 9일 부싯돌 성화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민체전 일정에 돌입했다.

광지에는 포토존이 운영되거나 동학농민혁명 재현 등 이색적인 이벤트가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회 성공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원을 담은 성화가 대회를 환하게 밝혀 전북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정읍 농기센터, 소통 행정 위한 정례브리핑 가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현)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문재현소장은 △농민수당 도입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했다.

먼저 농민수당과 관련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에 상응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정읍 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단풍미인쌀 브랜드 파워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소비유통의 다양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유통과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등 7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물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 유입 촉진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건설한 농업경영체 성장을 유도하여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희망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망이다.

문재현 소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처 예산 반영은 국가예산 확보의 첫 단추"

유진섭 정읍시장, 국회·정부세종청사 방문 국비 확보 활동 펼쳐

정읍시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풍곡 행보'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 등 정읍시 방문단은 9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여 2020 국비 확보 활동을 벌였다.

방문단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과 위기지원관리과장을 함께 만나 '정읍시 민방위 실전 체험 훈련장 건립'(30억원)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국회로 이동, 설훈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을 만나 '자생식물원 조성사업'(200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수목의 남·북방 한계 지역으로 다양한 자생식물이 서식 중인 내장산 생물지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오는 13일 전기재해

종합분석 센터 구축 등 5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들의 국비반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농림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부처 예산 반영은 국가예산 확보의 첫 단추인 만큼 전 직원이 열심히 뛰었다"며 "그동안 쏟은 힘과 여세를 몰아 기획재정부와 국회 단계에서도 지지치 않고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 실패소에서 중앙부처 일제 출장을 실시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또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서래봉회)과 2차례 간담회와 정읍시미래전략(중앙·지역)지문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